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재한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전화를 얼마나 전 받았다. 중국 말투가 조금 섞인 남자가 서울검찰청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내 명의가 도용되고 있으니 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보이스 피싱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어떤 것인지 호기심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오랫동안 통화하게 되었다.

통화가 길수록 사기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다. 한참 지난 후 전화 속의 남자는 중국동포 사투리의 욕설과 아마 중국어 욕설인 것 같은 알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질렀다. “방기 낀 놈이 성낸다” 속담을 연상 시킬 정도로 그 남자는 분을 삐지 못한 말투로 욕설을 내뱉었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조롱하고 장난친 실제 녹음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역관광’이라는 네이밍은 어려울 부르고 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크게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필자의 경우엔 상대를 조롱하는 역관광 까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세히 반문했

던 것뿐인데, 심한 욕설을 듣고 나니 황당하였다. 살인 미수이든, 사기 미수이든 성공하지 못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필자를 속이려고 했던 그 남자는 필자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될 뻔했던 필자에게

적반하장의 계절

그 남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심한 욕을 했다. 아마 그 남자는 필자가 자기를 우롱했고 아까운 시간도 낭비시켰다고 생각하여 욕한 것 같다. 글자 그대로 도적이 배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보상심리나 기대심리가 있었던 도적은 도적행위가 실패했을 때 배를 듣다.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그 나쁜 행위로 자신이 불명예를 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기대가 크게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나쁜 행위는 그 좌절감을 통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이합집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임기 말의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위도 더 찾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선 자신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난에는 ‘물에 빠진 놈 걷어놓으니까 볶침 내려 한다’는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이 배운 망덕했거나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종 평가에서 어떤 공개되고 일관된 원칙에서 의해 탈락된 사람 가운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객관적 지적에 대해 적개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다. 반대로 자신이 편파적으

로 좋게 평가받았을 때에는 정당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 전리를 달리는 천리마 꼬리에 붙은 파리처럼, 좋은 마음과 능력 없이 권력자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온갖 혜택을 누린 사람도 있다. 훌륭한 능력도 없고 착한 마음도 없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중용한 권력자의 책임도 크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건수와 금액은 작년에 역대 최대였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돈을 사기범에게 잘 보냈다라도 바로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카드 대출금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또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해서 피해자에게 전화 거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대책 등이 곧 실시된다고 한다. 사기범이 본색을 숨길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일순간 속더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순간적인 화장실에 속지 않도록 허상이 아닌 실상을, 즉시가 아닌 시차를 두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뿐 아니라 권리자의 후회 없는 판단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직을 남에게 베푸는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도록, 공직에 대한 업적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강병철

치아, 이, 이빨, 옥수수라고 불리는 이는 음식물을 자르고, 쟁고,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가 없으면 살 수 있지만 이가 있어도 이가 아파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면 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 진다. 이제 이가 아픈 것(치통)에 대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보자.

이(치아)도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과 신경이 들어가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무엇이 닿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픈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음식물이 입 안에 있으면 신경이 그 위치, 크기,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날카로운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단한 이에도 무엇인가 닿으면 알 수 있는 것은 신경이 잇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이 뿐만 아니라 있는 많은 신경이 있어서 이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누르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가 썩거나(충치) 깨지거나 금이 가서 잇속의 신경, 혈관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면 이가 아프게 된다. 염증이 생기면 잇속의 신경, 혈관과 다른 세포들이 죽어서 분해될 때 가스가 생기는(썩으면서 가스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 충치가 생긴 부위를 통해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충치가 조금 심해 깊고 두껍게 체

워넣는 경우(때우는 경우)에 나중에 서서히 잇속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잇속과 치아 외부와 충분한 소통 통로 없이 치아 속에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의한 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가스가 치아 속에 차게 되고, 염증이 지속돼 가스가 계속 발생, 치아 속의 가스 압력이 점점 더 높아져서 치아 속의 남아있는 신경을 누르면 아주 심한 치통이 생긴다.

이런 일이 오후 늦게 생기면 저녁, 밤새 가스가 차게 되고 치과에 갈 수도 없어 집에 있던 진통제나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먹는데, 가스는 계속 발생해 신경에 압력을 가하므로 치통은 멈추지 않는다. 한두 번에도 듣지 않고 계속 아프니, 어떤 사람은 열 개를 먹기도 하는데, 속만 쓰리지 이는 여전히 심하게 아파서 잠도 자지 못한다.

〈전남대치과병원 교수〉

기고



임영목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McKinsey & Company)의 2011년 12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로 삼은 최초의 국가이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 성장 정책의 꾸준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강조하였다.

미래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향후 20~30년 간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주요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시장, 친환경 유기농, 자원 재활용, 물산업, 그린비지니스 및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 환경, 그리고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해야 할 최우선 중장기 과제이다. 오늘날 환경과 에너지에 중점을 둔 녹색산업이 석유 기반산업이나 IT산업 등 기존산업과 달리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치유할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환경산업진흥원(강진환경기술센터)을 연말까지 설립하여 녹색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그린에너지펀드(76억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전달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전남대 여수캠퍼스) 및 서남권 청정에너지연구원(목포)에서는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전기저장, 풍력에너지, IGCC, DME, LED 응용, 수소연료전지,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녹색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외농업투자펀드(200억원)를 활용한 해외산림, 자원, 수산, 에너지 개발 등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녹색성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미래 환경산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다. 이것이 전남의 미래를 녹색 신산업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이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전국 최고의 일조량, 서남해안의 바람, 물들목 조류, 다도해, 갯벌,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산과 들 등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우리 지역이 녹색산업분야에서 타지역과

경쟁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산이다.

태양전지산업, 해상풍력에너지 국산화 기술, 탄소시장 선점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녹색에너지 자립 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미래소재산업단지(여수), 해외바이오산업, 발전설비 부품소재산업, 네릴란드 에너지 펀드 모델로 한 환생명 응합 수출 단지 조성 등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미래 핵심 신성장산업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서에서 민간분야 녹색산업과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에 1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전남도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케어야 보배다’는 말이 있듯이 재생력이 약한 전남도에서는 정부의 녹색기술 R&D 예산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관·학·연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히 있다. 각 계의 협조와 동참을 통하여 미래 녹색성장 산업에서 전남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건, 민족,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플라스틱 중앙분리대 사고 위험…고무재질로 바꿔야

다면 행이지만 만약 그대로 그 물체를 밟았더라면 아마도 타이어가 꽁크 나서 더 큰 위험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너무 놀라 분리대 쪽을 보니 트럭이 졸음을 했는지 스心底 마크가 길게 찍혀있었고 그 분리대를 들이받아 박살낸 상태였다. 그리고 이 분리대가 쉽게 움직여 도로상에 울퉁불퉁 뛰어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모두 폐기해야 같은 고무재질로 교체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차의 충격도 완화하고 이런 파편 조각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차에 새어나와 도로가 얼어붙는 때가 많다. 그럴 경우 운

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지난 주말에는 지방에 갔다 오던 중 경기도 오산~화성시 병점 사이 세교 택지지구 앞 1번 국도에서 한 대의 차량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목격했다. 분리대가 부서지고 수많은 플라스틱 파편이 도로가에 흘어져 있었다.

고속으로 달리다 그걸 피하는 순간 옆 차와 충돌할 뻔 했다. 추돌하지 않은 것도

오피니언

시설

정부 유가대책 ‘땜질식’으로 일관할 건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휘발유 값의 경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유가 오름세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땜질식으로 불과해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2000원을 넘어섰고, 서울 등 대도시에선 2200~2300원을 받는 주유소도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한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ℓ당 평균 가격이 1990원대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원을 넘겨 받는 주유소도 전체 16%에 달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기름 넣기 무섭다”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들과 유류로 생계를 잇는 농어민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지극히 안이하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실시를 비롯해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일률주유소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유가의 핵심인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추이는 단체로 겸토 차원에 머물러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유통구조 개선과 일률주유소 확대 문제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유가의 외부 충격을 늘 소비자한테 전가해온 게 사실이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느니,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서민들이 고통을 입어온 주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견인사업 불·탈법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광주 남구청의 민간위탁 견인사업이 업자들간 양도·양수되면서 마구잡이 견인에 따른 민원과 견인료 수의 축소 신고, 탈세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S업체는 연평균 1억 원에 가까운 견인료 수익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3년여 동안 35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견인업체는 보름마다 견인실적을 구청에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S업체는 실제 벌어들인 수익의 17.9%를 누락해 보고해왔다. 또 3년5개월간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일차량보고·관리대장과 회계장부 등도 비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하지 않았다.

구청은 그동안 견인업무가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만큼 해당 직원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고 직영체 전환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세청과 사업기관도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거래되면서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 무차별적인 견인과 견인료 수의 축소 신고, 탈세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S업체는 연평균 1억 원에 가까운 견인료 수익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3년여 동안 35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견인업체는 보름마다 견인실적을 구청에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아야 하지만 S업체는 실제 벌어들인 수익의 17.9%를 누락해 보고해왔다. 또 3년5개월간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일차량보고·관리대장과 회계장부 등도 비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청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하지 않았다.

구청은 그동안 견인업무가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만큼 해당 직원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